



간추린 청렴 소식



100호 기념 축하인사말

청렴소식지 창간호 발간자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지키고 유지하는 첫걸음이 바로 청렴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공동체를 청렴으로 지켜냅시다!!

청렴소식지 역대 발간자

오랜시간 검찰의 청렴문화를 조성해온 청렴소식지의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소식지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지를 읽고 공감하고 즐겨워해주시는 독자분들의 응원 덕에, 당시 소식지를 만들던 때가 참 보람차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청렴소식지가 100호가 되었다니, 저 또한 뿌듯하고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

먼슬리 청렴 100호를 축하합니다!! ^^

8년 여 기간 동안 꾸준히 청렴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통찰과 각 청의 청렴시책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검찰이 과거 부진했던 청렴도를 딛고 일어서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지지치 않고 쪽~ 우리에게 청렴을 일깨워주는 알찬 내용 전해 주세요. 먼슬리 청렴과 청렴한 검찰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대검 감찰부장

청렴(淸廉)은 국어사전에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청렴은 공무원 각자 스스로 떳떳함의 내적 바탕이자, 검찰이 투명하고 겸손한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본 토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꾸준한 목소리로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온 "Monthly 청렴"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함께해 주신 독자분들의 관심과 청렴업무 담당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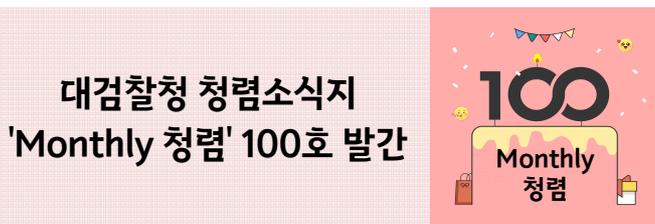
청렴소식지 구독자 의견

매월 먼슬리 청렴의 다양한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 문화의 인식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렴소식지를 보며 한번씩 나를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없이 달려온 청렴,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그 다음에도 주욱 청렴을 가슴에 품고 달려야겠지요!



<Monthly 청렴 창간호>

대검 감찰부에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내·외부 청렴소통 강화를 위해 발간하는 월간 청렴소식지인 "Monthly 청렴"이 2013. 7. 5.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어느덧 1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청렴소식지는 대검찰청과 일선청의 청렴소식 및 각종 청렴과 관련된 정책들을 전하고, 청렴이 있는 문화

이야기와 청렴 퀴즈를 통하여 검찰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게시 및 정책고객 메일 송부 등의 지속적인 외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내 · 외부 청렴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렴소식지를 매일 구독하고 청렴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등 여러분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지금까지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Monthly 청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청에서 청렴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장님과 등불

탈무드

한 젊은이가 어둑어둑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이거, 벌써 깜깜해졌네, 서둘러야겠군."

하지만 사방이 어두워 젊은이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달빛이라도 길을 비추어 주면 좋으련만.'

젊은이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며 생각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불빛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 등불이다!"

젊은이는 밝은 빛을 보자 무척 반가웠어요.

젊은이는 등불을 든 사람과 가까워졌어요.

주름살이 가득한 할아버지가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바닥을 툭툭 두드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알 수 없군. 등불을 들고도 잘 안 보이냐?'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젊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누가 오고 있다는 걸 알 게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은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해서 갈 수 있을 테고."

"네, 그렇지요."

"등불 덕에 사람들이 나와 부딪치지 않고 비켜 갈 수 있으니, 앞이 보이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아하!" 젊은이는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마음을 깨달았어요.

"영감님께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데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젊은이는 다른 사람까지 걱정해 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젊은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새 젊은이의 마음에도 등불 하나가 더 켜져 있었지요.

어릴적 많이 읽었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잠시나마 나의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은 작은 것일지라도 밝게 빛나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등불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등불을 켜면

결국 자신의 길도 밝힐 수 있다.

- 벤 스워드랜드 -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구글이 4년에 걸쳐 진행한 사내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통해 찾아낸 훌륭한 팀의 비결은 ___이 높은팀이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내놓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 ① 성실성 ② 심리적 안전감 ③ 주인의식

※ 힌트 : Monthly청렴 2021년 10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1. 11. 18.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0월 정답은 ① **장미의 이름**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



축! 이OO(대검), 박OO(서울고검), 조OO(중앙), 하OO(서울북부), 최OO(의정부), 강OO(대구고검), 김OO(강릉), 송OO(진주), 문OO(영월), 조OO(외부)

클린콜 제도 안내



클린콜 제도란?

검찰청에 방문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하여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설문 및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설문 대상	사건기록 열람등사 기소중지 재기 및 압수물 가환부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형사조정
기 간	연중 상시 실시(전화설문)
설문 내용	업무처리 태도 책임성 민원안내 적정성 청 이미지 개선노력도